

디지털 사랑 시대, 결혼의 종말을 고하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결혼의 종말

한중섭 지음

“불과 수십 년 전 사람들이 오늘날 온라인 데이트의 대중화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현재의 기준으로 미래의 사랑을 정확히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다만 예술작품의 힘을 빌려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영화 ‘그녀’와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묘사한 것처럼, AI와 가상현실이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신(新) 인류는 리브로봇과 가상현실 사랑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사랑을 경험할 것이고, 이것이 대중화된다면 결혼은 고지식한 아날로그 사랑의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다.”(본문 중에서)



프랑스 소설가 에밀 졸라는 결혼에 대해 “두 개의 다른 세상이 피할 수 없는 충격을 예견하며 서로 만난다”고 정의했다. ‘두 개의 다른 세상’이라고 언급

한 것처럼 결혼은 전혀 다른 두 인격체 만남이다. 결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결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갈수록 결혼하지 않으려는 청년남녀들이 늘고 있다. 1인가구가 대세인데다 혼밥, 혼술, 혼여 등의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결혼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이제는 결혼 여부가 전혀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다.

결혼과 관련 흥미로운 책이 출간됐다. ‘결혼 종말 시기를 2030년으로 설정한’ 내용 등 호기심을 넘어 결혼에 대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책이다. 유튜브와 SNS에서 책을 리뷰하는 ‘21세기 살롱’을 운영하는 한중섭 작가가 펴낸 ‘결혼의 종말’은 결혼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책은 결혼의 역사부터 조명한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수렵시대 군혼(群婚)을 결혼 시초로 본다. 이 시기는 가족을 비롯해 집단구성원 간의 성관계가 허용됐다. 농업혁명을 거치며 대우혼(對偶婚), 다시 말해 혈족과 다른 혈족 사이의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짝을 이뤘다. 이후 일부일체로 진화했다가 농업혁명, 계급사회, 부계사회의 전환 등 변화와 맞물려 결혼의 양상이 변했다. 또한 소유욕과 질투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결혼제도는 급변한다.

저자는 시대에 따라 결혼 조건이 바뀌었다고 본다. 계몽주의가 확산됐던 17~18세기에는 낭만적 사랑이 중요했지만 결혼이 개인 간 약속으로 변하면서는 당사자들이 결혼 주인공이 됐다. 데이트라는 연애문화와 이후의 페미니즘 또한 사랑의 역할 관계를 바꿨다.

저자는 ‘섹스와 결혼의 충돌’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도 들여다본다. 다른 동물의 경우 생식이 섹스의 목적인 반면, 호모사피엔스는 쾌락이 주된 동기였다. 쾌락적 욕구가 강한 인간은 사회규범 때문에 성생활과 일부일체제를 지키고 살기는 쉽지 않았다(저자는 일부일체제를 반대하거나 정상적인 부부들의 성생활을 부정하지 않는다). 즉 낭만적 사랑, 섹스, 안정감이라는 세 요소를 결혼의 ‘올인원 패키지’로 해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논리다.

사랑, 연애, 결혼도 시대 흐름과 무관치 않다. 하나의 문화현상일 수밖에 없다. 오늘의 자본주의는 ‘사랑한다면 소비하라’는 원칙하에 인간을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사랑의 본질마저 퇴색시켰다. 더욱이 오늘의 미디어는 ‘낭만 인플레이션’을 낳고 있다. 러브스타그램, 온라인 데이트팅 같은 디지털 사랑 양식은 사랑과 연애, 결혼에 있어 새로운 문화를 견인한다. 일례로 만남과 연애의 중간 단계인 ‘썸’은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오늘날의 사랑 방식이다.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는 ‘2030년쯤이면 결혼제도가 사라진다’고 예측한다. 여성의 지위 향상, 경제 문제, 개인주의로 지금의 결혼방식은 점차 ‘유물’로 변할 거라는 논리다. 저자는 과거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랑과 섹스, 결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미래 후손들 또한 현재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사랑과 연애, 섹스와 불륜을 저지를 거라고 부연한다.

여전히 결혼제도는 유효할까. 그렇지 않다면 대안이 있을까. 아니 결혼이란 과연 무엇일까.

〈파람·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결혼의 변화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보면, 가까운 미래에 급진적인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반복되고 순환되는 인간의 만남과 헤어짐을 표현한 강유정 작가의 ‘결혼의 종말’. 〈파람 제공〉

파티잔 극장

손흥규 지음

1930년대 말 삼정동 언덕배기에 자리한 셋집 마루에 여자아이 희수가 앉아 있다. 희수는 왕년에 유명 배우였지만 지금은 격리병동에 감금돼 있는 어머니를 기다린다. 그러나 돌아온 어머니의 모습은 어린 희수가 감당하기에는 벅하다. 애정과 증오 사이에서 요동치며 무너져 내리는 모습에 상처를 입는다.



셋집의 문간방에는 인력거꾼 아버지와 함께 사는 준이라는 소년이 있다. 준 또한 내면에 적지 않은 상처가 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방직공장 기숙사에서 지내는 터라 누나에게만 의지한다. 준은 희수의 상실과 상처가 자신의 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챈다.

이상문학상 작가인 정음 출신 손흥규 작가가 장편 ‘파티잔 극장’을 펴냈다. 독심 있게 자신만의 소설세계를 펼쳐온 작가가 ‘서술’ 이후 6년 만에 펴낸 장편이다. 불행한 역사의 굴레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비극을 감당하면서도 사랑과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이야기다. 소설에는 일제강점기 좌익 운동과 사상 검열, 해방공간에서의 좌우 충돌과 정치공작 등 주요한 정치적, 문화적 사실이 깔려 있다. 희수와 준 두 인물의 삶을 좌우하는 큰 사건과 주변 사람들은 당시 역사적 사건과 실제 인물을 참고했다. 세부의 정밀한 묘사는 단순한 소재적 관심이나 시대 고증 이상으로 작품이 현실에 밀착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작가는 그와 같은 요소를 전면에서 드러내기보다 이야기 밑바탕에 배치한다. 희수와 준 두 인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상황과 내면을 집중한다. 두 인물의 서로를 향한 마음은 이내 서로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진다. 자기 자신임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작가가 추구하는 또 다른 진실일지 모른다. 〈문학동네·1만4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유쾌함의 기술

앤서니 T. 디베네딕, 김유미 옮김

인간에게는 ‘유쾌 지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가 있다. IQ나 EQ 처럼 즐겨워 할 줄 아는 능력도 지능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노력 여하에 따라 유쾌 지능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저자는 유쾌 지능을 높이는 핵심 비밀 5가지를 찾았다. 상상력, 사교성, 유머, 적응성, 경이감이 그것이다. 강연하는 의사이자 행동과 학과 뇌과학의 열혈 지지자인 앤서니 T. 디베네딕이 펴낸 ‘유쾌함의 기술’은 흥미로운 책이다. 저자는 수백 명의 환자를 관찰하고 인터뷰한 결과와 사례 그리고 심리학, 사회학, 역사학, 신경과학을 아울러 다양한 지식을 녹여냈다.

저자는 일상에서 유쾌함을 발견하는 능력을 강조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즐겨워 할 줄 아는 능력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의 무감각과 스트레스로 가득한 삶에서 마음만 먹는다고 그 즉시 유쾌해지지는 않는다.

첫 번째 무기는 상상력이다. 인생의 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볍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삶을 재구성하는 능력과 최악의 적과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두 번째는 사교성으로, 유쾌 지능이 높은 사람은 선입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로 타인에게 접근한다.

세 번째는 고통까지 즐길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 바로 유머다. 건강한 유머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유머를 사용하는 실수를 줄이는 것이다.

네 번째 심리적 유연함을 길러주는 적응성,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경이감 또한 유쾌 지능을 깨우는 중요한 요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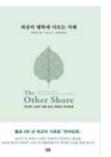
〈다산북스·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지혜

탁났한 지음, 손명희 옮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은 불교 가르침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반야심경’이라고 하는데 불교의 기본 성전인 반야심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독송되는 경전으로 누구나 한 번쯤 들 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반야심경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날마다 전 세계의 사찰과 선원에서 독송하거나 인용한다. 이러한 반야심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담은 해설서가 최근 출간됐다.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지혜’가 그것.

세계적인 불교 스승이자 시인, 평화운동가인 저자 탁났한 스님은 참여불교운동 및 다양한 평화운동을 이끌었고 마음챙김 수행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 또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입니다’, ‘탁났한 명상’,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화해’ 등을 출간했다.

저자는 책에서 반야심경이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공(空)’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 그에 따르면 공은 아무것도 없는 ‘무(無)’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자아가 비어 있다’, 즉 따로 자라고 부를 것이 없다는 뜻이다. 공은 오직 자아가 비어 있음을 의미할 뿐 자아의 비존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공에 대해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공을 적용하면 괴로움을 극복하고 크나큰 안도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면 관세음보살의 예를 들 것이다.

또 저자는 ‘강 건너 참자유에 이르는 지혜’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연기(緣起), 무아(無我), 중도(中道), 공성(空性), 무상(無相), 무원(無願)에 대한 반야심경의 가르침의 정수를 명확하게 표현했다.

〈싱긋·1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lovelyline4u.com

신세계 선이고운치과교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0(농성동) 밝은클리닉 5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서 천변방향 T. 062) 367-2279 | F. 062) 367-2280

■ 원장 | 교정전문의 이 기 현 | 김 고 운

www.chhospital.com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시험관아기기술 · 복강경수술

서구 무진대로 957번(광천동) 대표전화 062.368-1700

건강한 생명, 행복한 미래

전남대학교병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원장 이 삼 용

통합콜센터 1899-0000 응급의료센터 062.220-6801

CHOSUN UNIVERSITY HOSPITAL

조선대학교병원

병원장 정 종 훈

■ 대표전화 062)220-3114 ■ 종합건강검진센터 062)220-3030
 ■ 진료예약 062)220-3006, 3009 ■ 진료협력센터 062)220-3989
 ■ 권역응급의료센터 062)220-3119 ■ 홈페이지 https://hosp.chosun.ac.kr

CHOSUN HOSPITAL

중앙병원

심장내과, 신장내과,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 인공신장실, 재활한방과

내과전문의의학과사 내과전문의의학과사 이 강 수 홍 순 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4(화정동) T. 062.456-6600 F. 062.456-6601

마음까지 치료하는 더 큰 사랑

침던종합병원 CHEOMDAN MEDICAL CENTER

병원장 양 원 호

■ 광주광역시 광산구 침던중앙로 170번길 59(쌍암동 665-1)
 ■ 대표전화 : 062)601-8000 응급의료센터 062)601-8119
 ■ 홈페이지 : www.cheomdanhosp.co.kr